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구역예배 (임명숙 집사님)

일시 장소 : 2025년 10월 18일(토) 오전 10:30 (임명숙 집사님)
다음 모임 : 2025년 10월 23일(목) 오후 2:00 (이다남 집사님)

3. 태신자 작정의 주일(2주)

태신자 작정 및 전도 주간입니다. 전도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의 명단을 기록해 한금함에 넣어주시면 교회와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옥성 장세규 장세경 최란희 장지우 장연우 장은비 / 김주형 김현경 / 한정일 한효성 한인혜 정정제 / 김형태)

4. 성도동정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사명,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현진(군복무, 12.11), 이다남(노환) 박영대(노환), 김혜숙(협착증), 정현숙(숙면), 김옥희(평안, 가족), 정청재(공황장애, 믿음, 범리), 김강준(아토피, 가정의 평안), 김주형(사업), 한효성(직장), 박태성(정력), 한인혜(직장, 치유), 박재연(홈스쿨, 재정), 강선주(직장, 가족, 직장에서의 선한영향력), 최기준(관절), 임진관(중앙호요인양), 강영자(어깨뼈골절), 이상민(평안), 박순복(사랑살바밸리요양원), 문재희(직장), 손준경(이사, 목회, 손주), 한희락(진학, 진로), 노기봉(후두암), 오경자(치매) 장사라(공황장애, 가족구원-이옥성, 장세규, 장세경, 최란희, 장지우, 장연우, 장은비) 김옥희(직장, 건강, 가정의 평안) 한승훈(태신자 열매, 교회승합차)

이사 : 손준경 권사(안산, 2025년 10월 13일(월))

5. 2025년 10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8.10 ~ 9.11)

10.16(목) 이재아 어린이 10.29(수) 한효성 성도 10.05(일) 오수빈 어린이

전도와 부흥의 달

행사 계획

날짜	행사 내용
10/12	태신자 작정 주일(2)
10/19	태신자 작정 주일(3)
10/26	태신자 작정 주일(4) 종교개혁주일
10/27	추수감사절 장식(여전도회주관)
11/01	다니엘21일기회(11/1~21) 첫날맞이 월식예배(성찬예식)
11/02	태신자 만남의 주간(1)
11/09	태신자 만남의 주간(2)
11/10	영혼구원을 위한 특별사역기도회
11/13	선교현신예배(북한 성결교회)
11/16	추수감사절 총동원주일
11/23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성도전장식(교회학교 주관)

주일 사랑 운영

요일	운행 안내
주일	교회출발(9:45)▶정자동(10:00) ▶화서동(10:10)▶세류동(10:20)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정자동(13:40) ▶화서동(13:50)▶동탄(14:20)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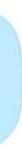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부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일~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담 후 진행)	

찾아오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 대표기도

- 10/12 김혜숙 권사
- 10/19 정현숙 권사
- 10/26 박재연 집사
- 11/02 손준경 권사
- 11/09 이광근 안집사
- 11/16 임명자 집사
- 11/23 임명숙 집사
- 11/30 김혜숙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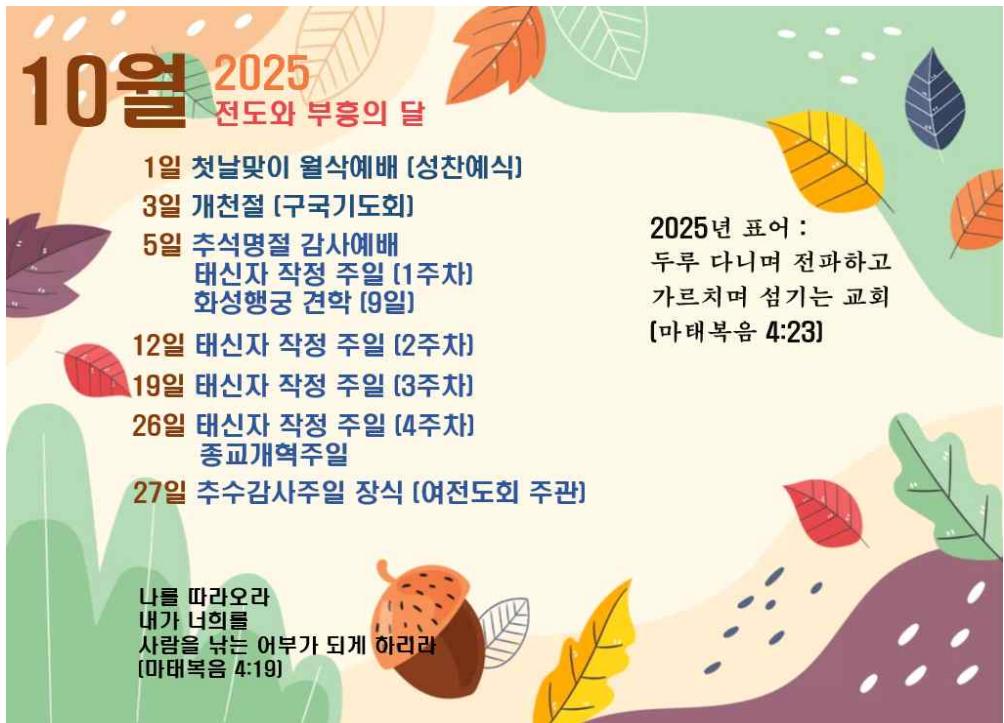


주사랑 8권 41호 2025년 10월 12일

창립 2017.11.25 성령강림 후 열여덟 번째 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전 11시 00분	(태신자작정 2주차)	인도: 담임 목사
※ 목 도	신명기 6:4~9	인도자
※ 찬 송 가	찬 619장	다 같 이 (놀라운 그 이름)
※ 사도신경		다 같 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성시교독	No.47 시편 105편	인도자/회중
찬 송 가	찬 272장	다 같 이 (고통의 명예를 벗으려고)
대표기도		김혜숙 권사 (기도하는 어머니)
※ 성경봉독	누가복음 17:11~19 (신 124)	김혜숙 권사
특 송	클라리넷 연주 '주만 바리볼자라'	한희락 학생
광 고		인도자
말씀인도	벽을 깨뜨리는 치유	담임 목사
봉헌찬송	찬 620장	다 같 이 (현금위원 : 한태민 학생)
※ 축 도		담임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언금은 언금임에 드립니다 / 입금: 2025.10.11. 오전 기준)	
십 일 조	이광근박제연 한성결 한승훈 임명순 한은총 한태민 한희락 / 임명순
주정현금	문재효 박제연 손준경 이광근 오동영 임명숙 임명순 임명자 정현숙 한승훈
감사현금	이광근박제연(자녀) 전복순 한승훈 임명순 / 김우화 김주형 김강준
월삭감사	한은총 한성결 한승훈 임명순 한희락
교회학교	이자아 이재우 이재희 임명순 한성결 한승훈 임명순 한태민 한희락
구역현금	박제연 임명순 임명자
선교현금	문동진 임명자 오동영 임명숙 이광근박제연 한승훈 임명순
건축현금	이광근박제연 한승훈 임명순
차량현금	나승원정영미
후원현금	오복상방애경
성 미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한승훈 목사
대표기도	맡은 이
성경봉독	출애굽기 20:18-26 (구 113)
말씀제목	화목을 위한 성결함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디모데후서 2:8-15 (신 344)
말씀제목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라

구역 · 가정(토)

오전 10:30	임명숙 집사
성경봉독	에베소서 2:22-28 (신 316)
대표기도	맡은 이
말씀제목	경건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자

침야기도회(금)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시편 11:1-10 (구 887)
말씀제목	감사함으로 살아가자

세벽 기도회(월~금)

세벽 530	출애굽기 강해
5월 일	출 20:18-26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6월 일	출 19:16-25 화목을 위한 성결함
7월 화	출 21:1-11 종의 규례와 주의 비밀
8월 수	출 21:12-27 폭행의 규례와 대속
9월 목	출 21:28-36 미AFP적고이성의 법률
10월 금	출 22:1-15 배상의 책임과 사기(오)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사)	

기타 기관 선교

오픈도어즈선교회	한국북한선교연구소
모통이돌선교회	한국성결신문
한국장애인선교회	한국장애인고용마을

국내선교(오주교훈홈스쿨)



해외선교(모로코)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⑥ 선지자 말라기는 온전한 십일조 예물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말 3:10~1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 너희에게 ()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⑦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자를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말 3:1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⑧ 말라기 선지자는 주님의 날이 오면 악인들은 용광로의 불과 같이 타는 심판의 날을 맞이할 것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나요? (말 4: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가 떠올라서 ()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⑨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다섯 가지의 책(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에 대하여 무엇을 당부하셨나요? (말 4:4)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와 ()를 ().

⑩ 말라기 선지자는 모세에게 허락하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할 때, “세례 요한”的 표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말 4:5~6)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해드립니다.)

성경공부 : 2025-41주 / 말라기 3장 ~ 말라기 4장

①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전에 먼저 보낼 하나님의 종으로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나요? (말 3: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②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말 3: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가 갑자기 그의 ()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가 임하실 것이라

③ 선지자 말라기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전에 불순물이 기득한 금속처럼, 때가 찌든 옷처럼 반드시 성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 내야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나요? (말 3:2~3)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과 표백하는 자의 ()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을 나 여호와께 비칠 것이라

④ 선지자 말라기는 제련의 과정에서 유다 백성을 재판에 넘기실 것인데, 그들을 고발하는 죄는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을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무엇이라고 했나요? (말 3:5)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치는 자에게와 ()하는 자에게와 ()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삶에 대하여 ()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하며 나그네를 ()하게 하며 ()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⑤ 선지자 말라기는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했고(창 14:20), 모세의 때에 법으로 제정했으며 (레27:30~34, 신 14:22), 자기의 땅을 소유할 수 없었던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몰두하는 것을 막고(민 18:20~21),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제정한 제도인 이것은 무엇인가요? (말 3:8~9)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와 ()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신앙의 향기 -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15)

성 루시안(St. Lucian of Antioch, A.D.240~312)은 초대교회 특히 동방정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였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 이단과 싸우다가 9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A.D. 311년 맥시미아노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루시안이 끌려나가 심문을 받게 되었는데, 황제는 루시안이 훌륭한 학자임을 아껴서, 예수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배교하면, 목숨을 살려 주고 부귀까지 주겠노라고 약속하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루시안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재판하는 법관 앞에서도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나는 크리스챤입니다!"라고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도 "나는 크리스챤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도 "나는 크리스챤입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감옥에 그를 면회하러 찾아온 성도를 보고, 자신의 몸은 널판지와 쇠사슬로 묶여 누워 있으면서도, 도리어 신자들을 보고 신앙을 끝까지 지킬 것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쇠사슬에 묶여 누워있는 자신의 가슴을 성찬대로 삼아, 그 위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는 그 다음날 끌려나가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박해자들은 그의 시체에 큰 돌을 매달아 깊은 바다에 던져 넣었지만, 2~3일 후에 시체는 다시 떠올라 장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자랑하고 고백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세상과의 타협이 들어와도, 유혹이 눈웃음쳐도, 죄가 미혹해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외쳐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같이	이	841	남유다 이하시야의 등극	왕하 8:25-29
찬송가	찬 524장	다같이	842	북이스라엘 예후의 등극	왕하 9:1-13
대표기도	임명순 사모			요람의 죽음, 아합 가문의 몰락	왕하 9:14-26
성경봉독	왕하 10:18-36	교		이하시야의 죽음, 이세벨의 죽음	왕하 9:27-37
말씀인도	열정보다 중요한 방향	맡은이		예후를 통한 아합 가문의 심판	왕하 10:1~11
합심기도	다같이	이		유다 왕 이하시야의 형제 심판	왕하 10:12-17
헌금기도	찬 322장	맡은이		예후의 비알승배 척결	왕하 10:18-28
주기도문	다같이	이	815	예후의 죽음, 여호야하스의 등극	왕하 10:29-36

■ 들어가는 말

오늘 본문에서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진멸한 후, 바알 숭배자와 바알 우상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이로써 여호와를 향한 예후의 열심은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후를 칭찬하시고 그의 후손 4대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호의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지 않았고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눈에 악한자로 낙인찍히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인격을 시험해 보고 싶다면 권력을 쥐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후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아처럼 바알승배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바알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심판의 대행자로서 신적 의지는 점점 퇴색하고 ‘권력의 욕망’만 남았습니다. 남다른 의지와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의도입니다.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남겨둔 그릇된 욕망은 없는지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을 더럽히는 척결의 대상을 주시해야 합니다(18~27).

‘아합의 가문과 왕조를 진멸하라’는 사명을 받은 예후(왕하 9:1~13) 순종해 진멸했습니다(9:14~10:7). 이제 북왕국의 바알 숭배자들까지도 척결을 시작합니다(10:18~27). “아합은 바알을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는 계책을 공포하고는(18), “바알을 위해 큰 제사를 드리려 하니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 바알 숭배자들을 한 사람도 빼짐없이 자리에 모이라”고 명합니다(19). 게다가 ‘불참자는 살려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바알 숭배에 대한 열정과 집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19). 예후가 바알승배자들을 사마리아로 소집하는 일은 일전에 엘리아가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소집했던 사건을 연상시켜줍니다. 엘리아가 정면대결을 사용했다면, 예후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세벨의 악행에 동참한 자들이고, 이스라엘을 영적·도덕적으로 썩게 만든 주범들입니다. 예후는 그들을 모두 처단하고(26), 바알의 목상과 신당을 헐어 변소로 만들어버림으로(27) 엘리사가 시작한 일을 완성합니다.

목하고 쌓여서 친숙한 문화가 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버린 죄악은 없는지 항상 마음을 주시하고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도 분명한 목표 설정과 지혜로운 계획과 과감한 결행의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둘째, 여전히 개혁하지 못한 절반의 심령의 욕망을 제거해야 합니다(29~31).

예후는 극찬을 받을 정도로 바알 종교에 철퇴를 내리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행한 일에 대하여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급으로 “4대의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30). 약속대로 예후 이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예후의 자손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는 북왕국 역사 209(BC 930~722)년 중 약 90년(BC 842~753)을 통치함으로써 가장 긴 통치기간을 영위한 왕조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예후의 죄목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29),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은 것’(31)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로보암 1세가 만들었던 ‘단과 벤엘의 금송아지들’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이용하기 위해 남겨두었습니다(29). 이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고, 여전히 영적·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31). 예후에게는 비느하스 같은 단호함은 있었지만, 다윗과 같은 온전함은 없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은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축복이 임하게 해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2~24)

셋째, 시련이 올 때,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31~33).

예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며, 단과 벤엘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섬긴 죄, 왕 자신의 불신앙, 잘못된 예배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도덕적 타락에 일조하게 됩니다. 이는 왕권과 왕조의 안위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 스스로 지키려는 욕망이었습니다.

예후의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32). 하나님은 아람의 왕 하사엘의 공격을 통해 땅의 일부를 아람의 관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 하셨다고 기록합니다(32). 이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민족의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이방인의 나라로부터 전쟁과 압제의 고통을 당해온 역사는 사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역사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람의 왕 하사엘을 통해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러 지경 특히 요단 동편의 땅이었던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의 기업’의 대부분을 하사엘의 손에 넘겨줍니다(32). 요단의 동편 길로 앗은 땅은 갓 지파의 땅이고, 남부 아르논강 부근의 아로엘부터 사해 북쪽까지는 르우벤 지파의 땅이며, 바산은 므낫세 지파의 땅을 가리킵니다(33). 자신의 ‘권력의 의지’로 하나님의 ‘신적 의지’를 대신함으로 ‘절반의 순종’을 보인 예후에게 ‘제한적인 축복’만 주신 것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쪼개버리자 하나님께서도 북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버리셨습니다. 절반의 순종을 보인 예후에게 하나님도 절반의 축복만을 주셨습니다. 왕위에 당장은 올랐지만 4대까지만 이어지게 하실 것이라 제한하셨습니다. 급기야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넘겨주셨습니다. 온전한 충성과 전적인 충성 없이는 온전한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련은 그의 욕망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계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계 2:3~4)